

피즘^{로 즐기는} 수학^{원리탐구Ⅳ}

제 1권
계산에 관한 원리 탐구
(노동수의 귀환)

저자 **최 경호** | 이야기 최 정윤·김근태 | 그림 YK·WISDOM



머리말

1. 이 책 시리즈를 쓰게 된 동기

(1) 공부는 재미있어야 합니다.(스토리텔링수학)

매 3년 간격으로 이뤄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결과를 공식 발표한 결과 우리나라가 **수학에서 1위**를 기록한 반면 수학의 경우 **흥미와 즐거움은 65개국 가운데 58위**,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유용할 것이란 인식은 꼴찌에서 3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수학 교과서가 **스토리텔링수학** 형태로 전국 초중고에 2013학년 초1,2학년과 중1학년을 시작으로 2014년-초3,4/중2/고1, 2015년-초등 5,6/중3, /고2로 **2016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재미있게 수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수학원리탐구Ⅰ·Ⅱ·Ⅲ·Ⅳ·Ⅴ의 내용을 토대로 **수학원리탐구Ⅳ의 내용을 퍼즐로 즐기는 소설 수학원리탐구Ⅳ를 시작으로 시리즈물을 계속적으로 출간**하여 어린나이에 수학은 재미있는 학문임을 인식시키려 합니다.

수학적 재능을 타고난 학생은 수학 자체를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인 경우에 수학을 어려워하고 수학 원리의 터득을 힘들어 하여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더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요청에 이 소설을 쓰게 된 주요 동기입니다.

(2) 수학은 정확하고 신속해야 합니다.

수학은 원리를 터득하면 어려운 문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 수 있으며 단순한 노동적인 풀이는 수학 문제 풀이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학이 공부의 고통으로 다가와 수학공부를 싫어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 해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정식으로 출간한 수학원리탐구Ⅰ·Ⅱ·Ⅲ·Ⅳ·Ⅴ와 도전원리 정수론, 기하학, 조합론, 대수해석을 공부한 수많은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세계 각지에서 우수한 인재가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홈페이지에 수강 후기를 남긴 재학생과 졸업생, 류재영(서울과학고, 카이스트, 서울대의학대학원), 이용훈(서울과학고, 서울대수리통계학전공), 유지환(한성과학고, 카이스트 수학전공)등과 외국의 경우 민동하·민동준 형제(버클리대 수학전공), 어완(하버드대)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원리를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수학문제의 풀이는 학생들에게 수학의 재미와 효율성을 느끼게 하는 예가 아닐까 합니다.

(수강후기는 m1239.com 또는 m1239.co.kr에 있음)

(3) 학생들의 목적은 노는 것(행복)입니다.

학생들이 학원에 왔을 때, 저는 첫 질문으로 왜 학원에 왔느냐고 물어봅니다. 어떤 학생은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 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생은 “공부하려고요” 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공부해서 뭐하려고?” 라고 물으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좋은 대학에 가려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등의 대답을 합니다. 그런 대답을 들을 때 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 줍니다. **“놀이 위해서 공부를 해라.”** 아이들은 공부 할 때가 아닌 놀 때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해야 할 공부라면 3시간 걸릴 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여 1시간 안에 끝낸 후 2시간을 놀이라고 말합니다. 그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원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2. 이 책 시리즈의 구성상의 특징

- (1) 수학원리탐구IV(초4·5·6용)의 퍼즐과 주요 수학원리를 흥미진진하게 모험추리소설화(총 6권) 하여 **재미있게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수학공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 (2) 읽기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학의 원리와 퍼즐을 저자(최경호)가 직접 강의를 촬영하여 **QR코드 또는 홈페이지(m1239.co.kr)에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3) 소설내용 속에 수학퍼즐과 수학의 주요내용을 생각해보기 문제로 넣어 **수학문제를 직접 풀어야 소설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하였으며, 유사한 퍼즐연습문제와 수학원리 연습문제를 넣어 수학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제1권의 주요 내용상의 특징

(1) 포함된 퍼즐

수학의 재미와 원리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기존의 퍼즐과 **새로운 퍼즐(계산기퍼즐, 소인수분해 퍼즐, 등식퍼즐)**을 고안하여 각단원의 원리와 유기적 연관을 갖도록 하여 재미와 수학공부의 효율성을 높이려하였습니다.

1-1장 성냥개비퍼즐, 1-2장 전광판퍼즐, 1-3장 계산기퍼즐, 1-4장 삼원퍼즐, 곱셈나눗셈퍼즐, 1-5장 등식퍼즐, 1-6장 수독(數獨, 스도쿠)

(2) 수학적 원리

제1권 계산에 대한 원리탐구는 1장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도·아라비아숫자의 10진법의 원리를 다른 기수법과 비교하여 편리함과 우수성 및 불편한 점도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2장에서 교환·결합법칙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계산을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장과 4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고 수학을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소인수 분해**를 퍼즐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암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인수 분해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5장은 수학문제를 푸는 도구로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등식의 원리**를 다루었으며, 6장은 수독과 숫자퍼즐을 통하여 신속한 판단과 논리추리력과 집중력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7월 저자 최경호

차례

프롤로그

제 1장 우리가 좀 특이해! (십진법과 고대의 기수법) 27

수학 읽을거리 : 0의 용도와 기원	28
우리가 좀 특이해!	29
DD쌤의 성냥개비 퍼즐	41
수상한 산타들	42
핑크 리본	51
도둑들의 아지트	58
DD쌤의 수학 원리탐구	67

제 2장 도둑들의 아지트 (교환결합법칙과 정확하고 신속한 계산) 73

수학 읽을거리 : 0의 필요성과 용도	75
10진법의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	
아지트에 갇히다	78
불빛 암호를 풀어라	86
DD쌤의 전광판 퍼즐	95
도둑들의 음모	96
스피드 계산암호	104
DD쌤의 수학 원리탐구	113

제 3장 우연한 행운은 불행의 징조 (소인수분해) 117

수학 읽을거리 : 로비 층이 0층인가 1층인가?	118
알 수 없는 아이들의 행방	119
인터넷 연결?!	124
DD쌤의 계산기 퍼즐	130
옹맹! 좀 가만히 있어!	131
DD쌤의 수학 원리탐구	143

149 제 4장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소인수분해 퍼즐)

150	수학 읽을거리 : 짐승도 더하기 빼기를 한다
153	밝혀지는 음모
162	두 번째 시도
168	DD쌤의 삼원퍼즐
169	또 다른 길
176	???
177	DD쌤의 수학 원리탐구

181 제 5장 살을 에는 듯한 추위와 필사의 탈출 (등식의 원리)

182	수학 읽을거리 : 수학의 도구, 기호는 언제 누가 만들었을까?
184	이수야! 제발 일어나!
188	아이들의 흔적
194	머리 위로 흐르는 물
208	DD쌤의 수학 원리탐구
212	숨겨진 입구
215	위기일발
221	등식 퍼즐

223 제 6장 DD와 PR의 정체 (수독)

224	수학 읽을거리 : 옛날 사람들은 수를 어떻게 썼을까?
227	???(2)
230	의문의 공간
235	수신의 추적
237	마지막 문과 이상한 메시지
247	구조
250	DD의 비밀
258	여러 가지 퍼즐
260	DD의 비밀(2)
263	DD쌤의 수학 원리탐구

270 에필로그
퍼즐 연습문제 풀이

주요 등장 인물



원 이수

원리를 이용해 어떤 문제든 빠르게 풀어나가는 수학천재. 하지만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어릴 때부터 각종 운동을 섭렵한 인간병기. 하지만 돌머리인 것이 콤플렉스

용 맹



나 송이

이수와 용맹이를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폭력소녀. 항상 말보다 프라이팬이 더 먼저 나간다.



이수의 아버지. 대한민국 경찰 경감이며, 항상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청렴 경찰

원 수신



김 노동



노 동수



안 사랑

피즘
수학

즐거움
포함

원리탐구Ⅳ

프롤로그

프롤로그

‘핑크리본 그룹, 불우이웃 성금으로 1억 원. 통 큰 기부.’

오늘자 신문의 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문구를 보며 사랑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사랑은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신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왜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퍼다 준단 말인가? 물론 그 돈을 받게 될 사람들은 약간의 고마운 마음은 갖게 되겠지. 하지만 그 뿐, 기부금으로 도움을 받게 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핑크리본 그룹을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사랑이 생각하기에 기부라는 것은 기부하는 사람이 손해만 볼뿐 아무런 이득을 얻을 수 없는 쓸모없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사랑은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착한 사람들일 뿐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사랑이 그동안 살아오며 보아왔던 몇 안 되는 착한 사람들은 모두 사랑으로써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지만 5년 전 사랑이 아직 뒷골목 건달이던 시절. 사랑은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하는 특이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이 바로 핑크리본 그룹의 회장이었다.

그 당시, 아직 중소기업이던 핑크리본 그룹의 회장은 뒷골목에서 더러운 짓을 일삼기로 아주 유명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인한 짓이라도 서슴지 않는 그의 모습에 수많은 뒷골목 사람들마저도 혀를

찰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언제나처럼 나쁜 짓을 하기 위해 뒷골목으로 출근한 사랑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신문에서 그 악명이 자자한 핑크리본 그룹의 회장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를 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 기사에서는 어려운 회사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힘든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 큰돈을 선뜻 기부했다는 핑크리본 그룹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그 기사를 본 순간 사랑은 그 핑크리본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큰 호기심이 생겼다.

‘이 사람은 온갖 범죄를 저질러가며 힘들게 벌은 돈을 왜 기부 같은 곳에다가 쓰는 것일까? 자신이 뒤에서 저지른 죄들을 이렇게 기부를 함으로써 속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문득 그런 생각을 떠올린 사랑은 어쩌면 이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에 대해 명쾌히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으로 누르며 빼앗아야만 하는, 항상 나쁜 사람일 수밖에 없는 사랑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다는 그 이해가 안가는 그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면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랑은 뒷골목 건달 짓을 때려치우고 핑크리본 그룹에 입사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사랑은 뒷골목에서 그랬던 것처럼 회사 내에서도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친한 동료라고 해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내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지금 사랑의 눈앞에는 사랑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어떤 문보다도 더

커다란 문이 놓여 있었다. 이 문만 열고 들어간다면 그 안에는 사랑이 그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랑은 문득 궁금해졌다. 이 문 뒤에 있을 그 의문의 사나이는 과연 천사일 것인가 악마일 것인가?



그때 생각에 빠져있었던 사랑의 뒤로 드르륵 하고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웬 멀치처럼 바삭 마른 남자 하나가 빨간 여행용 가방을 끌고 오고 있었다. 남자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부들부들 떨리는 팔에서 그가 얼마나 안힘든 척 하려고 애쓰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마치 남자가 가방을 끄는

것이 아니라 가방이 남자를 끌고 오는 듯한 그 모습에 사랑은 마치 그 모습이 고추장 발린 멸치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그 고추장 발린 멸치가 사랑과 눈을 마주치는 가 싶더니 갑자기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호오! 당신이 그 말로만 듣던 안사랑 부장님이로군요. 진급 축하드립니다. 저는 김노동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름이 김노동이라고? 뭐야 이 촌스러운 놈은?’

사랑은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김노동이라는 이름부터 불품없이 말라빠진 그의 생김새까지 한 군데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다. 혹시라도 이 녀석이 앞으로 자신을 보좌하게 될 부하직원이라면 이 김노동이라는 녀석은 정말 자신의 이름처럼 죽도록 노동만 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김노동이라는 녀석이 마치 친한 친구라도 된다는 듯 히죽히죽

웃으며 다가와서는 사랑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 것이 아닌가?

“저 역시 이번에 당신과 함께 부장으로 진급합니다. 아마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너도 부장이라고?”

그의 말을 들은 순간 사랑은 귀를 의심했다. 이런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녀석이 부장이라고? 이 회사 회장은 사람 보는 눈도 없는 건가? 사랑은 자신이 웬지 이 김노동이라는 녀석과 동급이라는 사실에 기분이 나빠졌다. 하지만 사랑은 이내 녀석도 녀석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안했다.

‘그래, 이렇게 못난 녀석이 여기까지 온 것을 보아하니 어찌면 녀석은 보기보다는 머리가 무진장 잘 돌아가는 녀석일지도...’

그렇게 생각하며 옆을 돌아보니 김노동은 여전히 히죽히죽 웃으며 그의 어깨를 도닥이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그런 식으로 웃으며 다가온다면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사랑은 이번 기회에 녀석에게 그 생각이 아주 큰 오산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로 했다.

“죽기 싫으면 그 손 치우는 것이 좋을 걸.”

사랑은 항상 혼자서 행동했기 때문에 주위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사랑에게 다가오곤 했지만 사랑의 그 험악한 인상을 한 번 보고 나면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랑은 김노동 역시 자신의 험악한 인상을 보고나면 다시는 친해질 생각 따위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 말로 큰 오산이었다. 김노동은 사랑의 그 표정을 보자 눈매가 약간 날카로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웃는 얼굴로

입을 열었다.

“워워 너무 흥분하지 마시죠. 당신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같이 일할 운명이니까요. 자 그럼 들어가실까요?”

그 말과 함께 김노동은 천천히 뒤로 물러서더니 그 거대한 문을 열고는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덜컥 겁을 집어먹고 자신과 거리를 둘 것이라 생각했던 사랑으로써는 약간 의외의 반응이었다.

‘어쩌면 생각만큼 멍청한 녀석은 아닐지도.’

그런 생각을 하며 사랑은 김노동이 들어가기 전 했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김노동은 분명히 ‘우리는 같이 일할 운명.’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무엇일까? 그와 자신이 앞으로 같이 일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말일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모르는 사실을 그 녀석은 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사랑은 제자리에 서서 잠시 생각 해 보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사랑은 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사랑은 거대한 문의 문고리를 잡고는 심호흡을 내쉬었다.

‘이 문 뒤에는 그가 있다.’

사랑이 그동안 만나보기 위해 애써왔던 사람이 바로 이 문 뒤에 있었다. 과연 그는 어떤 모습일까. 언젠가 TV에서 보았던 것처럼 비싼 양복을 입고 머리에서는 흰 머리가 희끗거리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면 저 김노동이라는 녀석처럼 생각보다 볼품없는 사람일까? 사랑은 웬만하면 후자보다는 전자이기를 바라며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생각보다 어두웠다. TV에서 보아왔던 커다랗고 위엄 있는 방을 상상했던 사랑으로써는 상당히 의외였다. 방 안은 TV에서 흔히

보아왔던 회장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5년 전 사랑의 주 무대였던 그 뒷골목의 아지트를 연상케 했다.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방의 한 쪽 벽을 이루고 있는 커다란 창밖으로 강남 시내 한복판이 내려다보인다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개미처럼 조그맣게 보이는 자동차들이 이곳이 얼마나 고층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방안이 너무 어두운 나머지 사랑은 그 창밖의 풍경 외에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때 앞쪽에서 김노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으로.”

그 목소리를 따라 앞으로 조금 걸어가자 그제 서야 사랑은 희미하게 보이는 김노동과 커다란 책상을 볼 수가 있었다. 책상 뒤에는 커다란 회전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창밖을 보고 있는 것인지 등받이에 가려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 사람이 회장이구나.’

과연 회장은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 물론 의자에 가려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랑은 감으로 알 수가 있었다. 그에게서 풍겨오는 알 수 없는 무거운 느낌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위압감. 회장은 확실히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때 사랑이 그 위압감에 눌러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사이 김노동이 자신이 가져온 여행 가방을 다짜고짜 열기 시작했다. 사랑은 이런 중요한 순간에 지퍼 소리로 자신의 심기를 건드리는 김노동을 한 대 쥐어박아 줄 기세로 확 돌아섰으나 열린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본 순간 사랑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열린 여행 가방 안에서 들어 있는 것은 바로 뽕뽕 묶인 사람이었다.

얼굴에는 자루가 씌어져 있어 보이지 않았지만 마구 헝클어진 넥타이와 양복을 보아 사랑은 그 사람이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앞쪽의 회전의자에서 마치 뱀이 쉼쉼거리는 것을 연상케 하는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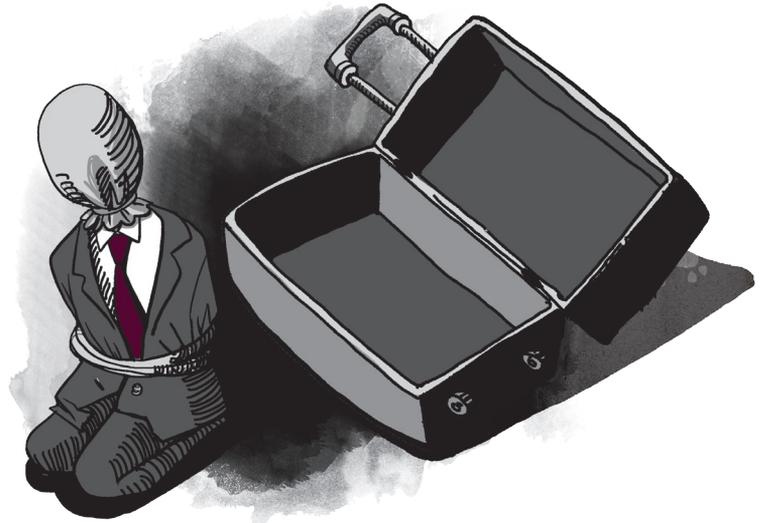
“그 녀석인가?”

“네 회장님.”

사랑은 그 인간의 것이 아닌 듯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고

그 뒤에 이어진 김노동의 대답에 다시 한 번 놀랐다. 설마 이 괴상한 목소리가 자신이 그토록 찾던 사람의 목소리란 말인가? 그리고 대체 뭘가 이 상황은?

김노동은 마치 회장을 만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마치 여기에 오기 전부터 회장의 명령을 받았던 것 같은 저 자연스러운 움직임. 사랑은 웬지 자신이 김노동보다도 뒤처지고 있는



듯한 느낌에 기분이 팍 상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회장은 다시 한 번 그 소름끼치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자루를 벗겨라.”

“네 회장님.”

그 괴상한 목소리의 지시에 따라 김노동은 그 뽕뽕 묶여있던 남자의 얼굴에 씌워져 있는 자루를 벗겼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사랑은 또 다시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남자는 바로 얼마 전에 사표를 냈다는 소식과 함께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는 김 부장이었던 것이었다. 오늘 사랑이 부장으로 진급하게 된 이유도 김 부장이 갑작스럽게 사표를 내버리는 바람에 비게 된 부장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였다.

자루가 벗겨진 김 부장은 정신을 잃은 상태였었는지 잠시 눈을 게슴츠레하게 뜬 채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김 부장은 잠시 어안이 병병한 표정으로 김노동과 사랑을 번갈아 보았으나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 되었다. 김 부장은 회장이 앉아있는 의자 쪽에 대고 고개를 마구 조아리며 다짜고짜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회회회회회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김 부장은 뽕뽕 묶인 상태로 바닥에 이마를 짚어가며 애원을 했고 그 모습은 처절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사랑은 사표를 냈다는 김 부장이 왜 김노동이라는 녀석에게 납치되어 이곳에서 잘못을 빌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때 그런 사랑의 이해를 돕기라도 하듯 회장의 쉼쉼거리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들려왔다.

“어이 안 차장, 거기에 있는 그 녀석은 우리 회사의 정보를 팔아먹은 녀석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방에 들어와 처음으로 회장이 사랑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리고 사랑은 회장이 자신을 부장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차장이라고 불렀음을, 그리고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깨달았다. **회장은 지금 김 부장이 살아있는 한 사랑은 진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회장은 지금 사랑이 김 부장의 목숨을 대가로 진급을 선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급을 포기하고 김 부장의 목숨을 구할 것인지 묻고 있는 것이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닿은 사랑은 씩 하고 웃고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런 배신자 녀석 따위는 당장 없애버려야 합니다!”

사랑의 그 거침없는 대답에 사랑을 애원하듯 바라보고 있던 김 부장의 눈에 절망감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김 부장은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 소리치기 시작했다.

“회장님! 정말 잊으신 겁니까? 저는 그동안 이 회사를 위해 이 한 몸 다 바쳐 헌신해 왔습니다! 물론 회사의 정보를 팔아먹은 것은 정말 죽어 마땅할 죄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수술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번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앞으로 이 회사를 위하여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김 부장의 목소리는 찌렁찌렁 울릴 정도로 컸고 그 때문에 회장실은 잠시 동안 침묵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 침묵을 깨며 듣기

불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크하하하하하하하!”

그것은 바로 뒤로 돌아가 있는 의자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김 부장은 그 웃음의 의미를 알 수 없어 어안이 병병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웃은 회장은 특유의 그 쉼쉼대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아하하... 그래. 제드 네 녀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뜬금없이 튀어나온 제드라는 이름에 김 부장 뿐만이 아니라 사랑까지도 어안이 병병한 표정이 되었다. 사랑은 혹시 김노동의 별명이 제드인 것인가 싶어 그를 쳐다보았지만 목소리는 뜬금없는 곳에서 들려왔다.

“예 회장님의 생각이 맞는 듯합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사랑의 왼쪽에서 들려온 것이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사랑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그동안 사랑이 그냥 그늘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사랑처럼 덩치가 커다란 남자 한 명이 보일듯 말듯 서있는 것이 보였다. 그 남자는 그 한마디를 하고는 다시 뒤로 한 걸음을 물러났는데 그렇게 하자 완전히 어둠에 묻혀 그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랑은 그 남자가 보여준 모습에 이 회장실 안에는 어쩌면 저 남자처럼 몸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몇 십 명씩이나 될 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사랑은 방금 전 그 제드라고 한 남자가 한 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회장님의 생각이 맞는 듯 하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그때 사랑의 그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사랑. 나는 그동안 쪽 널 주시해 왔다. 너는 그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지. 오늘 너를 부른 것은 널 시험해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역시나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군. 너는 오늘부터 안 ‘부장’이다. 앞으로도 쪽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군. 자 그럼 부장으로써의 첫 번째 임무를 내리도록하지. 네 앞에 있는 그 배신자 녀석, 그 녀석 하나 정도는 네 녀석이 아무런 흔적 없이 처리할 수 있겠지? 5년 전의 그 실력은 아직 남아 있을테니까 말이야.”

“회... 회장님!”

회장의 말에 이어 김 부장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지만 사랑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랑의 머릿속에는 온통 방금 전 회장이 했던 말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을 쪽 봐왔다니? 이 회장이? 사랑은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다. 회장은 사랑이 5년 전 어떤 일을 했었는지 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 말은 곧 회장이 정말로 그동안 사랑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회장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을 해왔었는데...!”

“흐흐흐. 헌신이라고? 어이, 김 부장. 네가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말이야. 나는 지금 네 녀석이 우리 회사의 정보를 팔아먹은 것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야.”

“예...? 그럼 왜...?”

“왜냐고? 그럼 반대로 내가 질문하지, 김 부장. 너, 그 정보를 얼마에 팔아먹었지?”

“예? 그... 그건... 2...2534만원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다. 네 녀석은 그 정보를 2534만원이 아니라 2535만원에 팔았어야 했어. 그런 간단한 계산 실수를 하다니... 계산은 모든 수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간단한 계산을 틀리는 녀석은 절대로 노동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후후후. 실수라... 노동이라는 것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지. 노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계산도 해치우지 못하는 녀석이 이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다. 김노동 부장, 저 녀석을 다시 가방에 넣어서 밖으로 끌고 나가게.”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회장님! 회장... 읊읍!”

김 부장은 또 다시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지만 김노동에 의해 억지로 커다란 여행 가방 속에 쑤셔 넣어져 밖으로 끌려 나가고 말았다. 그리고 사랑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또 다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아. 안 부장. 자네는 이제부터 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아 움직이게 될 것이네. 혹시 궁금한 적이 있는가?”

그 말은 사랑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지만 사랑은 그보다도 회장의 변화에 더 신경이 쓰였다. 회장은 처음 사랑이 이 방을 들어왔을 때처럼 반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격식을 갖추어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시험에 통과한 증거인가.’

회장은 아까 김노동에게도 격식을 차려준 것으로 보아 아마 김노동은 사랑이 보지 못한 사이에 시험을 통과한 것 같았다. 사랑은 김노동이

다시 보이는 것을 느끼며 차분히 대답했다.

“네. 한 가지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좋아. 나 역시 아무런 의심 없이 말만 잘 듣는 녀석은 사양이라네. 그런 점에서도 마음에 드는군. 그 질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네 회장님. 다소 건방진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회장님이 기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랬군.”

“예?”

‘그랬군.’이라니? 사랑은 뜬금없는 회장의 말에 다시 되물었지만 회장은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장시간 그 침묵은 계속되었다. 사랑은 회장이 말이 없자 혹시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회장은 다시 입을 열었다.

“기부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니... 자네 어쩌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쓸모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군. 자네는 아마도 기부가 손해만 보는 장사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맞나?”

“예... 예, 맞습니다.”

“역시 그랬군. 그럼 대답이 쉽지. 나는 계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라네. 자네도 5년 전 그곳에서 내 악명을 들은 적이 있었겠지? 자네가 들었던 그 소문은 틀리지 않아. 나는 절대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네. 다만 나는 좀 더 머리를 굴렸을 뿐이라네, 안 부장. 돈은 무엇이든지 사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사들일 수 없지. 하지만 기부는 그 어떤 것도 사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들일 수 있어. 그것이 내가 기부를 하는 이유라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기부를 해서

돈을 버려가면서까지 얻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들인 사람들의 마음은 곧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되었다네. 나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던 거야. 지금 나는 기부를 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네. 안 부장.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군. 세상의 그 어떤 선행도 이유 없는 선행은 없다네. 그 어떤 착한 사람이든 선행을 할 때 아무 이유 없이 하는 사람은 없어. 선행은 모두 잘 짜여진 계산 아래에 나오는 거라네. 이제 좀 이해가 가는가?”

“....”



사랑은 회장의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랑은 알 수 있었다. 회장의 그 대답으로 인해 그동안 사랑의 마음속에서 커다란 돌처럼 들어앉아 있었던 무언가가 시원하게 해소되었다는 것을.

그때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대답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의 질문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자네에게 첫 임무를 내리겠네. 이 임무는 비밀리에 진행 되어야 하는 것으로 자네와 김노동 부장이 함께 하게 될 것이네. 그것은 바로...”

그 뒤에 회장의 입에 나온 말들은 모두 어째서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뿐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일에 대해 질문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